

월경

발제문 outline

*들어가면서 --- 최근 생리대 광고에 대한 단상

- a. 파스텔 톤, 혹은 백색의 배경화면
- b. 깨끗하고 청순한 모델 고용
- 실제 대학생 모델(지적이고, 정숙한 이미지로서의)

*과학(의학)에서 본 여성의 월경 - "여성의 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참고로

- a. 과학적 '은유'
- b. 무엇이 문제인가?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 &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

- "여성망명정부에 대한 공상"을 중심으로

*덧붙여 얘기할 거리

생리대,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생리대 광고를 TV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망측하다고 여기며, '생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했다. 생리라는 것은 감춰져야 할 것이며, 아무도 모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다. 슈퍼마켓에 가서 생리대를 사는 것은 무엇보다 부끄러운 일이었고, 친구에게 생리대를 빌릴 때에도 "너 그거 있어?"라는 식으로 생리라는 말을 감추려고 해왔다. 생리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것"이었으며, 과거에는 멘스(menstruation)라고 아무도 생리를 하는 사람 외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통용되었고, 마법이라는 말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TV에서 생리대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리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도 매우 더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여전하다. TV광고는 대중의 심리나 의식, 가치관들을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TV광고에서 나타난 생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생리대의 TV광고는 밝고 화사한 파스텔 톤의 배경 혹은 백색 배경에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젊은 모델들이 등장한다.(절대 아줌마들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생리 중에 여성들은 굉장히 깨끗해야하며, 이 기간에 여성들은 결벽증을 보일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운다. 최근 들어 한 생리대 회사에서는 대학생이 계속 모델로 나오는데 이는 지적이고, 정숙하며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월경은 어떻게 얘기되어왔을까?

의학.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월경에 대한 '담론'들은 무수히 생산되었다. 사실 과학적 지식과 이론들은 자연적인 실재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 즉,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사실 이러한 '자연적인 사실'이나 '실체'가 되는 것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인식되고 해석되어질 때 가능하다.¹⁾ 다시 말하면, 모든 과학적 사실들은 사회 환경적인 맥락 안에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언어로 표현되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언어라는 것 역시도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없고,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실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은유와 의미의 세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는 없다. 여성의 몸을 표현할 때 역시 그러했다. 하나의 예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자의 운동성과 난자의 운동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왔다. 난자는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자의 경우엔 반대로 다른 정자들과 경쟁하며 난자를 찾아 움직이는 '능동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자는 아이가 갖춰야 할 모든 것(기관이나 피부, 뇌와 같은 신경세포 등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실체이며 난자의 경우엔 정자에 영양분만 제공해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급기야 난자와 정자는 땅과 씨로 비유되기에 이르렀다. 월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성은 자신의 열을 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여성은 배출할 출구가 없기 때문에 월경으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또, 월경을 소비의 속성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이를 일반화하여 여성은 시장 내에서 지칠 줄 모르고 소비함으로써, 남성에게 소비를 요구하는 존재로 '해석'되었으며, 남성이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무절제하게 소비하는 존재로 보았다.²⁾ 그렇기 때문에 폐경기가 되면 이를 소비하지 않고 축적하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기라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일반화와 응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여성의 몸을 자신들의 가설과 이론에 맞춰 일반화하기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의 월경은 어떻게 읽혔을까?

몇 달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 아프리카 한 나라에 미인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화이트닝 제품들을 쓰고, 더 나아가 얼굴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는 표백제까지 서슴지 않고 쓰고 있다는 보도 기사였다. 이를 보고 왜 미인은 하얀 얼굴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는 분명 백인들이 이 거대한 세계 안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역시도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뭔가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뿐만 아니다. 많은 중산층의 학생들이 상류층들이 가질 수 있을 가격대의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 역시 분명 상류층이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아는데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다. 여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시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월경을 만약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글이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얘기해보자.

1) 김은실, 과학언어와 은유

2) Emily Martin, 여성의 몸, 어떻게 볼 것인가? 중 여성의 몸에 관한 의학적 비유: 월경과 폐경